

한국석유공사는 가자지구 가스전 수탈을 중단하라!

양동민 회원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다. 2025년 10월 18일엔 ‘이스라엘의 가자 집단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집회’가 열렸고, 약 2,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날 여러 발언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벌여온 끔찍한 만행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 이스라엘이 그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반복해왔으며, 얼마 전 휴전이 시작된 첫날부터도 이스라엘은 또 가자 주민을 살해하였고, 어떻게 팔레스타인 저항 세력을 타하며 집단학살 재개를 위한 구실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했다. 참가자들은 휴전이 결코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발언대에 오른 마리암 동지는, “휴전 이후 운동의 원동력이 줄어들어선 안 되며, 가자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 아파르트헤이트와 식민점령의 종식만이 76년째 이어지고 있는 집단학살을 끝낼 수 있다.

가스 추출을 위한 축출 동맹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 과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플랫폼c 김지혜 동지는 가자지구 가스전 수탈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에 맞선 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원탐사기업 다나 페트롤리엄은 가자지구의 가스전 추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3년 집단학살 시작 직후, 다나 페트롤리엄은 가자지구의 가스전 탐사면허권을 이스라엘로부터 사들였고, 이스라엘 정부는 제멋대로 팔레스타인 해역의 탐사권 면허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이 돈은 다시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된다.

가자지구 해안 인근의 가스전 탐사권을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판매하는 건 명백한 국제

법 위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석유공사는 바로 그 탐사권을 구매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한국 자본과 정부의 학살 공모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집회에서 대학원생노조 이수민 동지는 이스라엘에 맞선 학술보이콧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서진 해고노동자로, 불법파견에 맞선 투쟁 끝에 내년부터 현대건설기계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된 변주현 동지는 HD현대의 이스라엘 공모에 맞선 투쟁의 필요성을 얘기했다.

특히 HD현대와 한화의 행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HD현대는 지난 십수 년간 이스라엘에 팔레스타인 가옥파괴를 위한 굴착기를 판매해왔는데, 이에 더해 올해 5월에는 이스라엘의 AI군사기술(팔레스타인인들을 표적살해하는 데 사용된 바로 그 기술!) 연구 및 실행에 깊이 공모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 방산AI기업 ‘팔란티어’와 만나 방산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한화는 그간 엘빗시스템즈, 엘타시스템즈 같은 이스라엘 군수기업들과 방산협력(이라 쓰고 학살공모라 읽자)을 이어왔는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날 집회에서는 ‘우리는 모두 팔레스타인인이다’라는 구호가 사용되었다. 팔레스타인의 해방이 인간해방의 전제이며, 이스라엘을 옹호하기 위해 제국주의 국가들이 퍼뜨리는 온갖 프로파간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팔레스타인과 직접적인 역사적, 문화적 교류가 매우 적은 한국에서,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는 모두 팔레스타인인이다”를 외치며 모인 것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이날 집회에 노동조합의 조직된 대오와 깃발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이 나아가야 할 현재의 과제를 선명히 보여준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적해왔듯이,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집단학살 과정에서 우리 모두 고통스럽게 확인했듯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해 만든 국제기구와 국제규범은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과 이를 비호하는 미국 앞에서 철저히 무력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를 지명수배했지만, 그는 버젓이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귀빈 취급을 받으며 돌아다녔다. 이 학살을 만들고, 지속시키고, 이로써 이득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제국주의 국가와 지배계급도, 강력하고 조직된 계급적 저항에 부딪지기 전에는 이 학살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한국석유공사의 가스전 수탈을 막기 위해, HD현대와 한화의 방산협력과, 한국 정부의 대이스라엘 무기 거래를



▲ 2025.10.18.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학살 2년 규탄 전국집중행동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다> 집회가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렸다. 사진 : 스튜디오 알

중단시키기 위해, 조직된 노동자운동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학살과 전쟁 반대, 연대총파업으로

얼마 전인 9월 22일과 10월 3일에 이탈리아에선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을 벌여, 이탈리아 주요 항구를 모두 봉쇄하고 대중교통의 90%를 마비시켰다. 이스라엘로 가는 배의 선적을 거부한 항만노동자들이 주도한 이 총파업은, 가까운 유럽 전역을 자극하며 연대시위를 만들어내고 있고,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각국 항만노동자들의 연대총파업 또한 조직되고 있다.

이제 곧 민주노총 2026년 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탈리아에서 전쟁과 학살 중단을 위한 총파업을 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없다. 대의원대회 때 이스라엘의 학살에 맞선 민주노총의 학살과 전쟁반대 총파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실천을 하나씩 조직해가자.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지난 2년간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글로벌서비스 등이 꾸준히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연대선전전을 이어오고, 대학원생노조가 학살보이콧 운동을 이어온 것은 좋은 실천 사례다.

이탈리아에서도 총파업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노조 관료들이 지배하던 CGIL같은 거대 노총들은 노골적 집단학살 앞에서도 소극적이었지만, USB같은 풀뿌리 노조가 앞장서 투쟁을 조직해왔다. 2년 전 이탈리아의 작은 항만 노동조합에서 선적을 거부하며 파업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땐, 소중한 투쟁이지만 동시에 작은 상징적인 투쟁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2년 뒤 지금 돌이켜보니, 바로 그 작은 흐름이 오늘날 거대한 이탈리아의 팔레스타인 연대총파업을 만들었다. 우리도 그 관점으로 운동을 조직해가야 한다.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세상을 움직이는 계급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노동자운동을 하루빨리 조직해가자. **알터**